

100년 전 해남군수 손녀 ‘고향사랑 실천’ 눈길

조원복 여사, 祖父 기려 100만원 기부
1980년 美 이민·2년 전 귀국 경기 거주
군 장학생 출신 익명의 기부자도 기탁

“조부의 흔적이 남은 해남에 작은 정성을 보낼 수 있어 뿌듯합니다.”
조중관 전 해남군수의 손녀가 100여년 전 조부와 해남군의 인연을 잊지 않고 고향사랑을 실천해 감동을 전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조원복 여사가 해남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조 여사는 1910년 해남군수를 역임한 조중관 전 군수의 손녀로, 1980년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 후 2023년 한국에 돌아와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달 말께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할아버지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해남을 방문했다.



조중관 전 해남군수의 손녀 조원복(왼쪽서 네 번째) 여사가 최근 해남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해남군 제공>

조중관 전 해남군수는 1888년 2월 경기도 과천시 남면에서 태어나 강진, 담양, 해남 등지에서 군수를 역임했으며, 생전에 교육 사업에 힘쓰고 여러 기부를 실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 여사는 “조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장모장 해남군 학예연구사로부터 관련 기록을 전달받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조부가 군수로 재직했던 해남군에 작게나마 보답하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해남군 장학기부금에도 특별한 기탁이 이어졌다.

/해남=박필용 기자



동강대, 전공 역량 강화·재능기부 ‘착착’

동강대학교가 전공 및 취업 지원 특강을 비롯해 재능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더욱 탄탄히 하고 있다.
3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방사선학과가 교내 보건관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직 역량 강화 패키지 과정’을 진행했다.
“역량 강화 패키지 과정”은 광주·전남 전략산업 분야를 연계한 지역 거버넌스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과 정보제공 시간으로 마련됐다.
방사선학과는 현직자 멘토링에 이어 효과적인 자기소개 및 질문 응답 전략 등 완벽한 면접

준비를 위한 특강을 열었다.
K-뷰티아트과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K-뷰티아트과는 미술 특강과 입사지원서 작성 특강을 마련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였다.
또 양산초교 체육관에서 열린 ‘북구가족센터 가정의 달 행사’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정선주 학과장은 “학생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특강에 이어 봉사활동을 통해 향후 사회에 진출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광주연구원 ‘생태관광 이해관계자 포럼’ 성료

광주연구원은 최근 소셜캠퍼스 온 광주(광산구 KH빌딩)에 ‘광주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타 지자체(순천시)의 우수 사례 파악과 생태관광 현황 진단을 통해 광주시에 적합한 생태관광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모세환 순천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대표가 ‘순천시 사례를 통해 본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김일권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주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연구과제’를 각각 발표해 광주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생태·관광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관계 공무원 2명을 비롯해 광주연구원 연구진이 함께 광주 생태관광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
광주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을 분석해 광주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문가 8명과 관계 공무원 2명을 비롯해 광주연구원 연구진이 함께 광주 생태관광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
광주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을 분석해 광주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담양 금성면 ‘베사모’, 취약계층 생활용품 전달

담양군 금성면 ‘베사모(베푸는 사람들의 모임)’는 “최근 이용찬 회장과 회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에 15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베사모’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된 모임으로, 회원들이 모은 회비와 후원금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용찬 회장은 “지역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함께하고자 베사모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12개 읍·면을 돌며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현기 금성면장은 “전달된 물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전남대병원-아이티아이즈 ‘AI 인프라’ 협약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에서 코스타드 상장 기업이자 금융 IT 및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기업인 ㈜아이티아이즈와 디지털 통합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와 AI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화순전남대병원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안재숙 의생명연구원 부장, 조상희 임상시험센터장과 ㈜아이티아이즈 김지수 사업대표, 김영철 상무, 김지석 수석이 함께했다.
양 기관은 ▲의료 데이터 기반의 DT(Data Transformation)·DI(Data Integration) 플랫폼 설계 ▲AI 서버를 포함한 플랫폼 운영 인프라

조성 ▲유관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김지수 ㈜아이티아이즈 사업대표는 “화순전남대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의료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정제·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석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의료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보다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광주기독병원 ‘제1차 동남권 원외대표협의체 회의’

광주시 책임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이 최근 올해 제1차 광주동남권 원외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3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책임의료기관 사업의 핵심 협력 주체인 원외대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2024년 책임의료기관 사업 성과 공유 ▲2025년 사업 추진 방향 안내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일차 의료 돌봄 협력사업, 퇴원환자 연계 사업 등 지역사회 기반의 실질적 협력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갔다.
홍건영 광주기독병원 공공의료본부 기획실장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야말로 책임의료기관의 핵심 역할”이라



며 “광주기독병원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기독병원은 2024년 광주 동남권역을 담당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의체 및 실무회의를 운영하며 지역 내 필수 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기수희 기자

광주교통공사, 노사 공동 사랑 나눔 행사

광주교통공사 노사는 “최근 지역 상생과 사회회까지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3일 밝혔다.
노사는 공사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550여만원의 성금을 광주 서구 서광지역아동센터와 북구 대상회장애인차량봉사대에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온정을 나눴다.
조익문 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조형호 전남대병원 교수 ‘교육발전 기여’ 장관 표창

조형호(사진)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3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조 교수는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개방형실험실 구축 사업단장으로 석·박사 학생을 지도했으며, 의료기술 사업화와 지도학생의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등 우수 의사과학자 육성에 기여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 교수는 “의료 현장은 날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적 사고를 갖춘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문과 실력을 겸비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써 이들이 진료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수희 기자



장흥경찰, 교통사망사고 예방 실무협의회

장흥경찰서는 “최근 장흥군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도 2호선 장흥군 관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전남경찰청, 장흥경찰서, 전남도청, 장흥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도 2호선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과 노면·환경 등 복합적 요인을 함께 분석했다. 이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 방안과 협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흥원 장흥경찰서장은 “이번 합동 협의회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어져 교통사고 예방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찰도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광주소방, 심리 치유 ‘원데이 클래스’ 운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3일 “소방 공무원들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데이 클래스는 시 소방안전본부가 추진하는 심리 지원 사업 ‘찾아가는 상담실’의 하나로 소방 공무원과 현장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심신 안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심박변이도(HRV: Heart Rate Variability) 스트레스 검사,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나만의 향수 제작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는다.
또 마음 건강 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원데이 클래스는 지난달 30일 북부소방서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각 소방기관에서 9회에 걸쳐 실시된다.
송성훈 소방행정과장은 “금호타이어 화재 등 대형 재난 현장에서 헌신해 온 소방 공무원들이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심리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행사

▲담양 죽화경(竹花景·대표 유영길) ‘제16회 데이지 장미축제’=6월7일(토)까지, 개장시간: 오전 9시30분~오후 6시, 담양군 봉산면 유산길 71(유산리 474), 문의: 010-8865-7884.